

中·日 레이스 포기...광주, 결승점이 보인다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광주 유치 전망은?

유일 경쟁 부다페스트도 2021년 유치로 선화

단독 신청 거부감 극복... 추가신청 경계해야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지로 광주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이 유치신청을 포기한 데 이어 유일한 경쟁상대인 헝가리 부다페스트도 2019년 유치 계획을 접고, 2021년 대회유치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6파전서 2파전으로 압축=6파전이 예상됐던 유치전에서 아시아권의 중국 선전과 일본 도쿄를 비롯한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브라질 상파울루 등이 신청을 포기하면서 광주와 부다페스트의 2파전으로 좁혀졌다.

특히 광주는 막대한 자본력과 행정력을 쏟아부어 승산 가능성을 점치기 힘들었던 중국과의 맞대결을 피하게 돼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유치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지난 2011년 상하이에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개최한 중국은 8년 만에 또 한번 재개최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차기 대회 유치를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

◇호사다마(好事多魔) 경계해야=

◇2019 AND 2021 두 대회 동시 발표= 이번 국제수영연맹(FINA)의 유치신청서 접수 중 특이점은 2019·(AND) 2021대회 등 2회 대회 개최지를 동시에 공고했다는 점이다. 특히 헝가리 부다페스트가 2021년 대회유치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광주의 단독 유치에 따른 '유치 확정설'마저 제기되고 있다.

'더 부다페스트 선' 등 헝가리 현지 주요 언론들은 지난달 29일자로 헝가리 총리실과 수영협회 공동 보도자료를 인용해 '부다페스트가 FINA 집행위원 등에게 2021년 대회 유치 신청을 밝혔'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7월 19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2019년과 2021년 개최지를 동시에 선정한 것"이라며 "광주는 2019년, 부다페스트는 2021년을 희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대로만 된다면 이번이 없는 한 단독신청에 따른 광주의 유치 확정이 유력하다. 강운태 시장도 "헝가리와 협조시스템을 구축하고, 유럽권 FINA 집행위원들을 설득해 광주는 2019년, 헝가리는 2021년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FINA측이 아직까지 신청서 접수 결과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회총행을 중요 항목으로 여기는 FINA의



강운태 광주시장(8월 오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신청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특정상 2회 대회 모두 단독신청으로 가는 '뻥뻥' 구조를 경계할 수도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단독신청에 따른 심사단의 기능 약화 등도 FINA가 경계하는 부분이다. 여기에 FINA위원들 입장에서도 로비진 등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다자경쟁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게 체육계의 분석이다.

일각에선 FINA에서 2021년 대회 개최지 선정에 미투고, 광주와 부다페스트를 대상으로 2019년 대회의 양자결 구도로 몰아갈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되고 있다.

◇타 국가 추가신청도 '경계'=국

제수영연맹(FINA) 규정에 따라 7월 19일 개최지 선정 전까지 유치신청이 추가 가능하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유치신청서 접수비가 1만 달러에 불과해 부담이 없는데다 FINA측도 흥행차원에서 여러 국가의 참여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언제든지 다자경쟁 구도로 바뀔 수 있다. 실제 FINA는 2015 러시아 카잔과 2017 멕시코 과달라하라 개최지 선정 과정에서 홍콩의 추가 신청을 받아 준 선례가 있다.

하지만, 유치신청 도시 실사기간이 다음달 24일까지인만큼 제 3의 국가가 유치 신청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

다는 게 광주시의 분석이다.

또, 다른 도시가 신청을 하더라도 중국만 아니라면 광주와의 경쟁력에 크게 뒤떨어질 것으로 체육계는 전망하고 있다.

광주시 안기서 체육지원과장은 "광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강운태 시장을 중심으로 유치전에 뛰어들어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마저 포기하게 만들었다"면서 "유치가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며, 오는 29~30일로 예정된 실사단의 광주 방문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월드컵·육상선수권과 함께 단일종목 3대 이벤트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월드컵과 육상선수권대회와 함께 단일종목으로는 세계 3대 메가 스포츠 이벤트로 꼽히며 2년마다 개최된다.

광주시가 유치에 나선 2019년 제18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아마추어들이 참여하는 제17회 세계마스터즈수영대회와 함께 열린다.

대회기간은 2019년 7~8월 중에 31일간 캄피엔시(16일)대회가 끝나면 마스터즈(15일)가 연이어 개최된다.

참가규모는 202개국에서 캄피엔시의 경우 선수와 기자, 운영요원 등

7000여명이 참여하며, 마스터즈 대회에도 1만3000여명이 참가한다.

대회기간 열리는 종목은 국제수영연맹(FINA)의 규정에 따라 경영, 다이빙, 수구, 싱크로나이즈, 오픈워터 등 5개 종목, 66개 종별이다.

광주 유치가 확정될 경우 대회장소는 광주시 일원에 지어지는 5개 종목 주경기장과 워업(Warm-up) 경기장, 훈련장 9개소다. 경영과 싱크로나이즈는 남부대수영장(2015년), 다이빙은 진월체육관(2014년), 수구는 광주주여대체육관(2014년 이하 완공예정년도), 오픈워터는 광주호와 장성호에서 열리게 된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국제수영연맹 총회서 집행위원 21명의 과반 득표로

개최도시 결정 어떻게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도시를 결정하는 국제수영연맹(FINA)은 1908년 설립됐으며 본부는 스위스 로잔에 있다.

202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고, 수영과 다이빙, 수구, 수중발레, 아쿠아영(오픈워터) 등 5가지 종목에 관한 규율을 정한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아메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등 5개 대륙별연합회가 있다.

FINA 집행기관은 총회와 기술총회, 사무국, 집행위원회, 상임위원회, 상임위원단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회가 가장 상위 조직이다.

총회는 국제연맹 내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도시도 총회에서 결정된다.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개최도시도 오는 7월 19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집행위원 22명의 과반 득표로 결정된다.

다만, 집행위원 중 개최도시 신청 출신이 있을 경우 투표권을 잃게 된다. 헝가리가 참여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헝가리 출신 집행위원 1명이 제외돼 21명의 집행위원 중 11명의 선택을 받아야 개최도시가 될 수 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말썽많은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주기 1년→4년으로 바꾼다

안행부, 공무원 보수만큼 자동 인상 추진

기초단체장·의원 정당공천 폐지도 공론화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 결정주기를 현행 1년에서 4년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상당수 지자체의 지방재정 위기에 대해 전국 지방의회 중 4분의 1 정도가 의정비 인상을 추진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데 따른 개선조치다.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 인상에 대한 제한적인 인사권을 주고 의원마다 보좌인력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며, 기초 지자체장과 의원의 정당공

천 폐지를 공론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8일 지방자치의 의정비 결정주기를 4년으로 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정주기를 늘리는 대신 매해 의정비가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자동으로 인상되도록 한다는 게 안행부의 방침이다.

지방자치의 의정비는 매해 지자체의

재정력 지수, 의원 1인당 주민 수 등에 따라 기준액을 정하고 여건변화 등을 고려해 지급수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해 기준액의 20% 안팎에서 주민의견을 수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최종적으로는 의정비 등 지급조례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안행부 관계자는 "매년 의정비를 인상하려는 지방의회와 이를 제지하는 주민들 간의 논란이 끊이지 않아 불필요한 시비를 줄이고자 결정주기를 4년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라며 "지방의원 임기가 4년인 만큼 합당한 개선안"이라고 말

했다. 앞서 작년에는 전체 244개 지방의회 중 4분의 1에 가까운 55개가 올해 의정비를 작년 대비 평균 4.5% 인상했다. 의정비를 가장 많이 인상한 지방의회는 무려 16.5%를 올린 경북 영천시의회이며, 강원 화천군의회(인상률 8.8%), 부산 서구의회(7.4%), 경기 김포시의회(7.3%)가 뒤를 이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 인상은 주민들의 대표적인 불만사항으로 주민소송의 단골메뉴로 자리매김하기도 했다. 현재 진행 중인 12개 주민소송은 모두 불법 의정비 인상을 환수 요구 소송이다.

안행부는 또 지방자치의 지자체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지자체장에게 있는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제한적으로 부여하고, 보좌인력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안행부는 이들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하반기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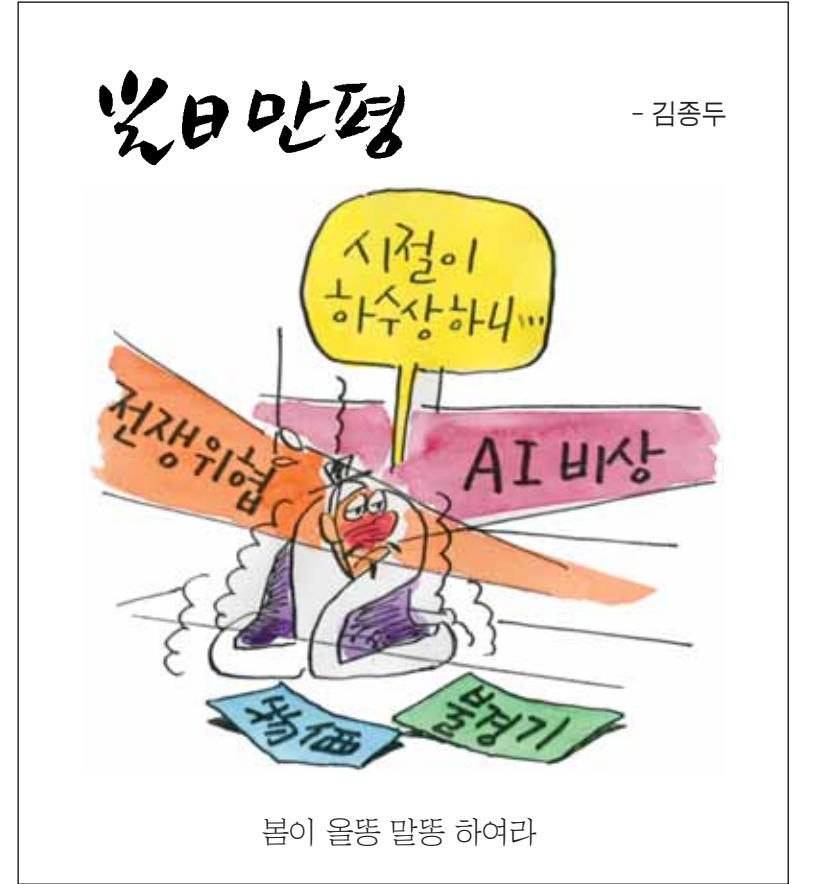
아울러 새정부 대선공약이었던 기초 지자체장과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공론화해 국회에서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안행부는 또 지방자치의 지자체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지자체장에게 있는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제한적으로 부여하고, 보좌인력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안행부는 이들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하반기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정부 대선공약이었던 기초 지자체장과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공론화해 국회에서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봄이 울퉁 말뚝 하야라

www.HanaTour.com

London Stock Exchange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하나투어 **광주/전남** 전용 상품으로 **화사한 봄나들이** 가세요~!

상담 및 예약: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모든나라여행사 (전남대정문)	062)521-2100
윤기주하나투어 (신세계 이마트 1층)	062)360-0166
세정투어여행사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3층)	062)464-8000
여로관광여행사 (순천 공전예술극장 건너편)	061)742-1270
남해여행사 (목포 한사랑방문)	061)287-4100

편안한 무안출발 상품!

기기묘묘한 절경 장가계!

4월01일~5월17일 매주 월요일/금요일 (총 14회)

장가계/월가계 4월/5월 "별파사지" 849,000원~

장가계/월가계 4월/5월 "명품호텔" 1,149,000원~

거대한 자연, 맛있는 음식대만 여행

5월16일(목) 석가탄신일 3박4일

대만 4일 이류*회원 "지우펀" 899,000원~

대만 4일 이류*회원 "101빌딩" 1,149,000원~

대만 4일 이류*회원 "다오링" 949,000원~

광주/전남 기획상품

[JKP776-BKF] **특급호텔 숙박, 봄나들이!** (국내수송포함)

일본-북큐슈 4일 부산해리 349,000원 단 하루, 4월 15일

[국내수송포함] 동유럽 5개국 9일 3,600,000원~

북경 [COPF01-OZE] 반박특가 4월/5월 299,000원~

상해/항주/수주 [COPF01-MUX] 상해/항주/수주 4월/5월 299,000원~

하나투어 단독 크루즈 6월 2일 출발!

스타크루즈 세미나호 여수·제주·상해 5일 코드 CCC820 ₩750,000원~

스타크루즈 세미나호 여수·제주·상해 5일 코드 CCC820 ₩750,000원~

국내/제주도 상품

[AKPK73] [패키지] 제주도 3일 생생 웰빙투어/세계자연유산 318,000원~

[AKAK72-79] [자유여행] 제주도 3일 숙소+항공+렌트 포함 304,000원~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가이드비,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에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유류세는 상기상품 가격의 별도지불되며 항공사별로 상이하므로 확인바랍니다. ◆부족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선택경비 선택관광경비, 안내원봉사료 등은 고객님의 선택에 의해 현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출발일/출발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www.hanat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중구로 광명동 1번지 (하나투어)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 제26004-1993-6(중구로) ■관광통신신고 Tel 1577-1233 ■22억1천만원 보증보험 가입 ■숙소:2급호텔이상 ■교통편:항공/버스/페리 ■항공사별로 유통할증료 인상금액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